DBpia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관한 주관성 연구

A Q Study on Gender-role Identity among College Students

저자
(Authors)
김명애, 남승희
Kim Myung-Ae, Nam Seung-Hee

출처
(Source)
성인간호학회지 16(2), 2004.6, 306-315 (10 pag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6(2), 2004.6, 306-315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성인간호학회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548777

APA Style
김명애, 남승희 (2004).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관한 주관성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6(2), 306-315.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220.69.112.22
2016/03/17 10: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주요용어 : 성역할, 성정체감, 학생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관한 주관성 연구*

김 명 애**·남 승 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은 육체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으로서 스스로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통합적 차원이다. 성은 구체적인 성행위와 정체감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는데, 이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성적 평형을 유지함으로써 성적 안위를 가져온다(Citron & Kartman, 1982).

성역할정체감은 그 사회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 개인의 성별 특징적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Jang, 1999). 이는 자신의 성별이 남자 혹은 여자인가를 나타내는 성정체감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성정체감이 생물학적 개념임에 비해 성역할정체감은 생물학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로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형성, 발전하는 개념이다(Gong & Choi, 1994).

성역할정체감은 그 근원을 유아기에 발달하는 성정체감에 뿌리를 두어 '나는 남자이다', 혹은 '나는 여자이다'라는 생물학적 성의 인식과 수용으로부터 시작되며 성역할 발달의 결과로서 자기지각이 증대되는 아동 후기 및 청소년기에 이르러 구체화되기 시작한다(Yoo, 1994). 청소년기 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는 생식기관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정신적으로는 인지발달로 자신의 실체를 살펴보고,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와 성의 의미를 통해 자신이 택할 성인으로의 역할이나 개성을 신장시키려는 생애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이들이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며 인식하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과 의미는 대학 졸업 후 취업, 결혼 등을 통해 사회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갈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Yang & Jung, 2002).

또한 성역할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로써 각 개인의 외현적 행동,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내면적 생활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Lee, 1992), 대학시절에 겪는 과정인 이성교제와 진로, 직업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대학생의 적응과 관련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계속 변화되는 성에 적응하며 살아가며, 성정체감은 건강상태나 질병, 스트레스, 위기 등으로 인해 변

* 본 연구는 2003년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연구비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투고일 2004년 4월 16일 심사의뢰일 2004년 4월 16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9일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화할 수 있다. 성정체감의 위기는 인간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우울, 건강행위 수행 및 지각된 건강상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et al., 1999). 인간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간호대상자들에게 발생한 성역할의 변화와 이로 인한 성역할정체감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성역할정체감의 변화 경향을 간호중재를 위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역할 유형에 대한 연구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극적 단일 차원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과 달리 사람은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Bem(1977)의 양성성 이론이 일상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관련하여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국 사회의 성역할 검사도구 개발연구(Kim, 1988; Chung, 1990; Chang & Seo, 1991; Lee, Kim & Koh, 2002)와 성역할정체감과 학습된 무기력, 과제수행 능력,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자기의식, 장래계획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Kim, 1989; Park, 2000; Kim, 1993)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연구자가 사전적으로 정한 객관화된 측정도구를 모든 피험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의 행동이 가진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배제된 것이다. 성역할 현상은 도구적 및 표현적 특성 외에도 능력, 관심, 흥미, 가치관, 성역할 태도, 남성적 및 여성적 행동 등의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Helmreich, Spence & Holahan, 1979) 기존의 외적 기준에 의해 이러한 성역할 현상, 대상자의 특성, 태도, 행동 등을 평가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주관성 연구라고도 알려진 Q방법론은 특정 주제나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태도, 신념, 확신, 가치 등과 같은 주관적인 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Kim, 1990). 성역할정체감이 인간의 행동과 태도 혹은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Q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잘 연구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가치 등 이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주관성을 규명하고,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각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여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대학생들의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표집방법

1) Q-표본의 구성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Q표본은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자와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Lee et al., 2002)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 검사도구(KGRII: Korean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를 이용하였다. KGRII는 문항 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개발된 도구의 문항들과 이들 문항 이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에게서 여성성, 남성성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개발한 것으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한국 성인의 성역할정체감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본 도구의 문항 내용 구성은 연령에 따라 속성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기보다 연령대별로 속성 중 어느 측면이 더 강조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도구가 성인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성인초기인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특성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사도구에 구성된 남성성 하위척도 15문항, 여성성 하위척도 15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5문항의 총 45개 문항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2) P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선정은 대구에 거주하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남녀 대학생 각각 22명인 총 44명을 학년 분포를 고르게 하여 임의 표출하였다.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3) Q-분류과정과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먼저 성별, 학년, 전공분야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성역할정체감 문항이 적힌 최종 진술문 표본 45개를 이용하여 각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읽고 자신에게 가장 해당되는 문항(+), 중립(0), 자신에게 가장 해당되지 않는 문항(-)등 크게 3무더기로 분류한 다음 자신에게 가장 해당하는 진술문이 적힌 카드부터 차례로 골라 오른쪽 바깥에서(+4) 안쪽 중립부분에 놓도록 하였다. 또 자신에게 가장 해당되지 않는 진술문이 적힌 카드부터 차례로 골라 왼쪽 바깥에서(-4) 안쪽 중립부분에 놓도록 하였다. 이때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 8개를 채택한 이유를 각각 쓰도록 하였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는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은 문항(-4)을 1점으로 하여 2점(-3), 3점(-2), 4점(-1), 중립 5점(0), 6점(+1), 7점(+2), 8점(+3), 가장 동의하는 문항(+4)에 9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 후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이러한 자료를 PC용 Quanl Program으로 처리, 그 결과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Q-유형의 형성

Q 표본을 분류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첫째 인자의 변량도가 20%, 둘째 인자의 변량도가 13%, 셋째 인자의 변량도가 8%로 전체 변량도는 41%였다. 총 44명의 대상자중 제 1유형에 16명, 제 2유형에 16명, 제 3유형에 12명이 속하였고 인자가중치가 1.0이상인 사람이 제 1유형에 9명, 제 2유형에 5명, 제 3유형에 2명이 속해 있었다<Table 1>.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300이며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146,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029으로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각각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유형간에 낮은 유사성이 있었고 제 1유형과 2유형은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성역할 성체감의 유형별 특성

각 유형이 자신에게 가장 해당 또는 가장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택한 진술문 중 유형별 표준점수(Z-score)가 ±1.00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변화 유형별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유형 : 성역할초월형

제 1유형은 온정적이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성을 지니고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사회규범이라는 준거에 비추어보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에 긍정하였으며 남성형과 여성형을 초월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측면에 더 가치는 둔다는 점에서 '성역할초월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생각이 깊다.', '이해심이 있다.', '양심적이다.' '감사할 줄 안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박력이 있다.', '모험심이 강하다.', '추진력이 강하다.', '자신감에 차 있다.' 등의 순이었다<Table 2>.

제 1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자신이 말이나 모든 행동을 깊게 생각하고 행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매사 실수도 적으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다른 진술문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 항목에 대해 긍정한다고 답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인정이 많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으며, 감정을 잘 표현하며, 주위의 변화나 상대방의 태도와 심리에 많이 민감한 편이다. 또한 새로운 모험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좋아하고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려 하며 수동적인 경향이 있었다. 제 1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전체 16명 중 여학생이 10명을 차지하였으며, 남학생이 6명으로 여학생의 수가 많았으며, 자연계열이 11명, 인문계열이 5명으로 자연계열의 학생이 많았고, 종교는 기독교가 많은 분포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 1유형의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유형의 표준 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진술항목을 보는 것이다.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s of P-samples

types	id	factor weights	grade	sex	religion	a major fieldof study
1	30	2.37	1	F	catholic	humane science
(N=16)	36	2.31	2	F	none	nature science
	35	2.15	1	F	none	nature science
	9	1.68	3	M	protestant	nature science
	29	1.39	1	F	catholic	humane science
	14	1.38	4	F	protestant	natural science
	7	1.17	4	F	protestant	natural science
	11	1.14	2	M	protestant	natural science
	41	1.07	3	F	catholic	humane science
	8	.96	1	M	protestant	natural science
	4	.56	3	F	protestant	natural science
	10	.54	4	M	protestant	natural science
	42	.54	2	F	protestant	humane science
	19	.52	4	M	none	humane science
	12	.42	3	F	protestant	natural science
	1	.21	4	M	protestant	natural science
2	23	2.08	2	M	none	humane science
(N=16)	16	1.84	4	M	none	humane science
	17	1.60	4	M	none	humane science
	37	1.45	2	F	none	natural science
	18	1.07	4	M	none	humane science
	44	.98	3	F	none	natural science
	5	.94	2	M	protestant	natural science
	26	.87	1	F	none	humane science
	38	.81	2	F	none	natural science
	15	.63	2	M	protestant	natural science
	27	.63	3	M	none	humane science
	2	.61	4	F	protestant	natural science
	25	.49	3	M	none	humane science
	21	.46	1	M	catholic	humane science
	34	.44	3	F	protestant	natural science
	24	.32	3	M	none	humane science
3	32	1.74	4	F	none	humane science
(N=12)	43	1.03	3	F	none	humane science
	33	.87	3	F	protestant	natural science
	20	.79	4	M	protestant	humane science
	31	.78	4	F	others	humane science
	13	.67	4	M	protestant	natural science
	22	.61	1	F	none	humane science
	39	.44	3	M	buddhist	humane science
	28	.36	4	F	buddhist	humane science
	6	.35	2	M	protestant	natural science
	3	.24	2	M	protestant	humane science
	40	.27	2	M	catholic	natural science

제 1유형이 2,3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각 유형과 다른 유형의 차이가 큰 항목을 통해 주관성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제 1유형은 2,3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생각이 깊다.(1.80)' ,'근면하다.(1.49)', '다정하다.(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이가 낮은 진술항목은 '자신감에 차 있다.(-2.25)', '주도력을 발휘한다.(-2.14)', '통솔력이 있다.(-1.99)' 등으로 나타났다.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Table 2> Descending array of Z-score and items description for gender role identity type 1 (above & below ±1)

Item description for type 1 (above +1)	Z - score	(below -1)	Z - score
20. thoughtful	1.98	30. enjoying cooking	-1.05
17. understanding	1.56	1. having leadership	-1.13
23. conscientious	1.40	25. ambitious	-1.13
5. thankful	1.28	10. brave	-1.14
41. sincere	1.23	28. dealing with serious matters well	-1.19
36. sensitive	1.17	13. initiative	-1.25
35. affectionate	1.13	43. physically strong	-1.28
29. sympathetic	1.07	7. confident	-1.31
11. polite	1.03	4. driving	-1.37
		31. adventurous	-1.57
		19. powerful	-1.97

2) 제 2유형 : 남성지향형

제 2유형은 리더쉽이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즐기며, 어떤 일에 대해 먼저 나서서 하는 유형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남성성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며 순종적, 세심함, 섬세함 등의 여성성의 특성에는 강하게 부정하여 '남성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포부와 야망이 있다.', '모험심이 강하다.', '성취욕이 있다.', '자신감에 차 있다.', '통솔력이 있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순종적이다.', '애교가 있다.',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말을 아름답게 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제 2유형에 속하는 대상자의 대부분은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로 "자신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목표를 정하면 꼭 이루어 내려고 하며 평소에 리더 경험이 많고 항상 남을 이끌어야 한다는 신조로 산다."고 했다. 이 유형의 특성은 매사에 독립적이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은 꼭 성취하려는 높은 의지력도 지니고 있었다. 제 1유형과는 반대로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으며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다. 이 유형의 남성의 경우는 자신이 남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성보다 체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챙기는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무딘 편이었다. 제 2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전체 16명 중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6명으로 남학생의 수가 많았으며, 인문계 9명, 자연계 7명으로 비슷했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제 2유형이 나머지 1,3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모험심이 강하다.(3.20)', '박력이 있다.(3.00)', '포부와 야망이 있다.(2.06)' 등의 진술문이었

<Table 3> Descending array of Z-score and items description for gender role identity type 2 (above & below ±1)

Item description for type 2 (above +1)	Z - score	(below -1)	Z - score
25. ambitious	1.55	33. jealous	-1.15
31. adventurous	1.44	24. enjoying romantic story	-1.21
37. desiring achivement	1.24	36. sensitive	-1.40
7. confident	1.23	27. careful	-1.49
1. having leadership	1.07	15. delicate	-1.61
		3. using beautiful language	-1.73
		18. charming	-1.76
		30. enjoying cooking	-1.88
		42. obedient	-1.93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Table 4> Descending array of Z-score and items description for gender role identity type 3 (above & below ±1)

Item description for type 3 (above +1)	Z - score	(below -1)	Z - score
12. emotional	2.29	38. diligent	-1.12
39. tactful	2.14	10. brave	-1.19
45. talkative	1.81	22. independent	-1.47
16. active	1.68	3. using beautiful language	-1.48
18. charming	1.05	31. adventurous	-1.95
		19. powerful	-2.02
		42. obedient	-2.22

고, 차이가 낮은 진술문은 '민감하다.(-2.20)', '감정이 풍부하다.(-.2.01)', '애교가 있다.(-1.88)' 등으로 나타났다.

3) 제 3유형 : 여성지향형

제 3유형은 상대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여성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애교심과 질투심, 말이 많음, 쉽게 울음, 민감성 등의 특성을 긍정하고 모험심, 주도력, 박력 같은 남성적 특성에는 부정하여 '여성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감정이 풍부하다.', '재치가 있다.', '말이 많다.'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순종적이다.', '박력이 있다.', '모험심이 강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제 3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을 면담을 한 결과, 대부분이 자신은 감정이 풍부해서 잘 울고, 잘 웃는다고 하였으며, 평소에 상대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사람과의 사귐을 좋아하고, 인간관계에 있어 대화를 중요시 여기며, 질투심이 많으며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꺼려하며,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냈고,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제 3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6명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동일하였으며, 12명 중 8명이 인문계열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많으나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 3유형은 1,2유형에 비해 '말이 많다.(2.61)', '애교가 있다.(2.35)', '재치가 있다.(2.25)' 등의 진술문에 높은 차이를 보였고, '모험심이 강하다.(-1.88)', '순종적이다.(-1.53)', '박력이 있다.(-1.51)' 등의 진술문에 낮은 차이를 나타냈다.

Ⅳ. 논 의

인간은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역할이 발달된다. 그리고 각 개인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그가 속한 사회에서 남·녀 각 성별에 적합하다고 기대되는 가치, 성격 특성 등을 획득, 내면화시킴으로서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의 이러한 성역할정체감은 그의 행동 및 자아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정체감 확립을 위한 역할 실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성역할초월형', '남성지향형', '여성지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 1유형인 '성역할초월형'에 속한 대상자는 깊이 있는 사고, 이해심, 양심, 감사의 마음, 진실성 등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한편 박력, 모험심, 추진력, 자신감 등 전형적인 남성성 항목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이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성품이 온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부드러운 심성을 지녔으나 모험을 무릅 쓰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 유형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속하지 않은 중성적이면서 사회적 바람직성 항목에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는 남성형과 여성형 특성을 초월한 바람직한 측면에 더 가치를 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성역할초월(sex-role transcen-dence) 개념은 Hefner, Rebecca와 Oleshansky(1975)가 주장한 것으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용해되어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행동을 결정할 때에 성역할 기준이 절로 무관해지는 최종 발달단계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역할초월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욱 개성적이고 적응적인 상태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성전형화된 사람에 비해서 양성적인 사람은 정보처리과정에서 성별구분을 별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 적합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아예 의식하지조차 않는다고 하는 Bem(1981)의 인지도식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유형의 사람은 성별구분을 하는 것에 비해서 더욱 발전될 상태라고 보기보다는 상이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제 2유형인 '남성지향형'에 속한 대상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성, 자발성, 주도성, 적극성, 활동성 등의 남성성의 특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반면 순종적, 세심함, 섬세함 등의 여성성의 특성에는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이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성역할초월형과는 반대로 모험을 즐기고,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항상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았다. 이는 Lee(1983)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지향성이 높은 집단(심리적 양성집단과 남성적인 행동특성의 집단)의 자아 존중감이 남성지향성이 낮은 집단(여성적인 행동특성의 집단과 미분화된 집단)보다 높다는 결과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 3유형인 '여성지향형'에 속한 대상자는 풍부한 감성, 표현성, 세심함, 재치 등의 여성적 특성을 가치 있게 여기며 예술가적 성향을 보였다. 반면에 제 1유형인 성역할초월감과 동일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남성적 특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특히 '자기표현'을 잘하고 있었는데 '자기표현'이란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이며(Kim, 1989),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학습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Kim(2002)에 의하면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자기표현의 정도는 남성성 집단이 자기표현을 가장 잘하며, 여성성 집단이 가장 자기 표현력이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적 특성을 지니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보여 위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Q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Q진술문은 우리나라 사회의 전형적인 성역할고정관념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 Lee 등(2002)이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 검사도구(KGRII)를 이용하였다. KGRII를 진술문으로 이용한 것은 남성적 및 여성적 특성을 각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만으로 구성하였으며, Kim(1988)과 Jung(1990)의 부정적 항목, Chang 등의(1991) 공통성 항목 대신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중성적 특성을 포함시켰고, 이를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과 동일한 비중으로 포함시킨 점 때문이었다. 이들 세 가지의 독립적 속성은 이를 강제분포시킴으로써 유형을 구분하는 Q 분류에 적합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역할정체감의 세 가지 유형 중 '성역할초월형'은 사회적 바람직성 항목, '남성지향형'은 남성성 항목, '여성지향형'은 여성성 항목으로만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항목에 포함되었다. Q진술문으로 사용한 KGRII의 구성 요인인 사회적 바람직성, 남성성, 여성성 요인이 구분된 각 유형에 그대로 반영되어 각각 긍정적 문항으로 나타난 점은 특기할만한 것으로 도구의 준거타당도를 높여 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세 가지 유형의 성역할정체감은 Bem(1972)이 양성성의 개념을 소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으로 구분한 것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양성성을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Kaplan & Sedney, 1980)으로 보는 기존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Kaplan과 Sedney(1980)는 양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모두 함으로써 더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여 양성성을 바람직한 특질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역할초월형'은 성역할에 우선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특성을 지닌 자들에 있어서 이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양성성 이론과는 달리 성역할 기준을 초월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즉 '양성성'이 남성성, 여성성의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로 주장적이면서 온정적이고, 도구적이면서 표현적이며,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이라는 자아개념을 가지고 이에 따른 혼합된 반응을 융통성 있게 표현하는 사람인 반면 '성역할초월형'은 성별구분을 하지 않으며, 남성형과 여성형 특성을 초월한 바람직한 측면에 더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양성성'과는 구분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 각 유형별로 남성의 과반수, 여성의 대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다수가 스스로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성차별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성역할로부터의 해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과거 여성적 성격으로 여겨졌던 좋은 성격 특성들이 이제는 성별을 떠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분류된 것으로 여겨진다.

각 유형과 다른 유형의 차이가 큰 항목을 통해 주관성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제 1유형은 2,3유형에 비해 '생각이 깊다.' ,'근면하다.', '다정하다.' 등의 '사회적 바람직성 항목'에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자신감에 차 있다.', '주도력을 발휘한다.', '통솔력이 있다.' 등의 '남성성 항목'에 낮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제 2유형이 나머지 1,3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모험심이 강하다.', '박력이 있다.', '포부와 야망이 있다.' 등의 '남성성 항목'에 해당되는 진술문이었고, 차이가 낮은 진술항목은 '민감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애교가 있다.' 등의 '여성성 항목'이었다. 제 3유형은 1,2유형에 비해 '말이 많다.', '애교가 있다.', '재치가 있다.' 등의 '여성성 항목'에 높은 차이를 보였고, '모험심이 강하다.', '순종적이다.', '박력이 있다.' 등의 '남성성 항목'에 낮은 차이를 보여 각 유형간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에 우선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특성을 지닌 자들에 있어서 이들이 남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양성성 이론과는 달리 성역할 기준을 초월하는 새로운 유형이 확인되었다. 둘째, 성차별 입장에서 볼 때 남성의 과반수, 여성의 대부분이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변화되거나 진보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세 가지 성역할정체감 유형 중 어느 것이 더욱 발전된 상태라기보다는 상이한 상태라고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능한 근거가 제시되었다. 넷째, 응답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배경 문항으로만 사용되었던 사회적 바람직성이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을 구분하는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사회 안에서의 인간은 특수한 의미와 적합성의 구조를 가지므로 인간의 주관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사회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서 (Kim, 1992) 시도된 Q방법론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대학생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로 성이나 성역할과 관련되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대학생의 성역할성체감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관련 다양한 교과내용을 개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지도 방안을 계획하여 사회에서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방하여 삶의 질과 건강증진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는 성정체감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느낌과 태도에 익숙해질 책임이 있다. 간호학생에게도 그들이 느낌과 태도를 드러내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성역할정체감이 각 개인의 행동과 태도 혹은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성역할정체감의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Q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선정은 대구에 거주하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남녀 대학생 각각 22명인 총 44명을 학년 분포를 고르게 하여 임의 표출하였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Q표본은 문헌 고찰을 통해 Lee 등(2002)에 의해 개발된 KGRII에 구성된 남성성 하위척도 15문항, 여성성 하위척도 15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5문항의 총 45개 문항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진술문을 읽고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분포 속에 강제적으로 분류하게 한 후 PC용 Quanl Program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성별, 학년, 전공분야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성이 있는 건강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 1유형은 '성역할초월형'으로 온정적이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성을 지니고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남성형과 여성형의 특성을 초월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에 더 가치를 두었다. 제 2유형은 '남성지향형'으로 리더쉽이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하는 유형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활동적인 남성성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며 여성성의 특성에는 강하게 부정하였다. 제 3유형은 '여성지향형'으로 감정 표현을 잘하고 여성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애교심과 질투심, 말이 많은, 재치, 쉽게 울음, 민감성 등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양성성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닌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변화되고 진보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대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서 그들의 성이나 성역할과 관련되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성역할정체감과 직업적 요인 및 건강행위 등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성역할정체감이 연령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성역할정체감 유형 구분시 중성적 문항으로 충전제로서의 국한된 의미를 지녔던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의 역할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em, S. L. (1972). Psychology looks at sex roles: Where have all the androgynous people gone? Paper presented at the UCLA Symposium on Women.

Bem, S. L. (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 Consult Clin Psychol,* 45, 196-205.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Chang, H. K., & Seo, B. S. (1991). A Study on the Sex-Role Identity Inventory. *J Korean Acad Family Nurs*, 29(4). 167-179.

Choi, Y. S., Jang, C. J., Jo, H. S., Choi, Y. J., Jang, S. B., Park, Y. S., Lee, N. H., Jo, D. S., & Lee, E. H. (1999). *Women's health nursing*, Seoul, Sumunsa.

Chung, J. K. (1987). An Androgynous Approach to the Study of Sex Roles. *Korean Women's Studies,* 3, 132-160.

Chung, J. K. (1990).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Korean J of Social Psycholigy*, 5(1). 82-92.

Citron, H., & Kartman, L. L. (1982). Preserving sexual identity in the institutionalized aged through activities.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3(1). 55-63.

Gong, I. S., & Choi, Y. S. (1994). A Study on Androgynous Parent's Child - rearing Practices and Children's Self - Perceived Competence. *J Korean Acad Child Nurs*, 15(1), 187-203.

Hefner, R., Rebecca, M., & Oleshansky. (1975). Development of sex-role tran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143-158.

Helmreich, R. L., J. T. Spence., & C. K., Holahan. (1979). Psychological androgyny and sex role flexibility: A test of two hypotheses, *J Pers Soc Psychol,* 37(10), 1631-1644.

Jang, H. S. (1999). *Youth psychology*. Seoul: Hacjisa.

Kaplan, A. G., & Sedney, M. A. (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Kim, E. S., Lee, K. S., & Kim, Y. H. (1999). Health Promotion and Health Education. Seoul: Hongkyung.

Kim, D. I. (1993). Sex stereotype of Korean. *Sociology of Gender*. Seoul: Munemsa.

Kim, H. K. (1990). *Comprehension and Adaptation of Q-Methodology*, Seoul: Speech cultural Institute of Seokang University.

Kim, H. K. (1992). "Comprehension of Q-Methodology for Subjectivity", *The Seoul J Nursing*, 6(1), 1-10.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Kim, M. N. (2002). *The Adjustment of School Life, Assertiveness of Girls in Middle School with Types of School and Gender Role Identity(GRI).*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Kyungnam University, Seoul.

Kim, Y. H. (1988). Development of Korean Sex Role Inventory. *J Asia Women*, 27. 153-182.

Kim, Y. H. (1989).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and learned helplessness of Korean youth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Lee. B. S., Kim, M. A., & Koh, H. J. (2002). Development of Korean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 *J Korean Acad Nurs,* 32(3), 373-383.

Lee, J. Y. (1983). Sex-role identity, self-esteem, and marriage and career plans of university women in Korea. *Asian Women.* 22. 87-98.

Lee, M. S. (1992). A Review on research methods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sex role identity. *J Kor Res Inst Bet Liv,* 12(1). 61-89.

Park, Y. J. (2000). *A Study on College Students' Gender Role Identity & its' Relationship to Sex Stereotype and Self-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So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Yang, S. O., & Jung, G. H. (2002). Perceptional Difference of Sexual Image and Sexual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Korea.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s*, 8(2), 289-300.

Yoo, G. H. (1994). Sex - Role Development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J Korean Acad Child Nurs,* 15(1), 127-144.

- Abstract -

A Q Study on Gender-role Identity among College Students*

*Kim, Myung-Ae**·Nam, Seung-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mong college students' gender-role identity. **Method:** The study used a Q-method to measure college students' gender-role identity types. Korean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KGRII) formed the Q sample. The P sample consisted of a convenience sample of 44 college students. Q statements were written on separate cards and were given to the subjects to sort according to degree of agreement or disagreement. The Q-sorts by each subject were coded and analyzed with the Quanl PC program. **Result:** From data, three types were extracted. Three types showed a low correlation with each other, and accounted for 41 percent of the variance of the participants. The first type, a 'sex-role transcendence', expresses warm, humane, and kind. The second type, a 'masculinity intention type', has leadership, activity, power, and initiative. And the third type, a 'femininity intention type' pursues emotional, expressive, delicate and tactful. **Conclusion:** This paper classifies and subdivides three types of gender-role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It helps understanding of gender-role identity, and further developing a sense of value and attitude related to gender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Gender role, Gender Identity, College Student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Dongsan Medical Center of Keimyung University, 2003.

** Professor, Nursing College in Keimyung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in master's program, Nursing College in Keimyung University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